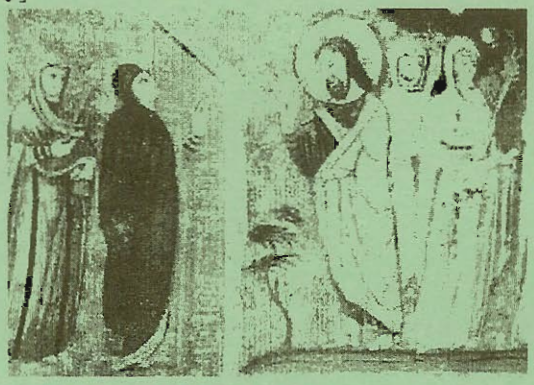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9주일
제3권 37호(다해) 2010·8·8

[묵상]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6세기, 채색삽화, 로사노대성당 보물실, 이탈리아>

보물은 우리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도둑이 훔쳐갈까, 좀이 쓸까,
늘 걱정해야 하는 보물입니다.
이 보물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데 필요한 것으로
많이 가질수록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점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울수록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도둑맞을까, 좀 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보물로
하느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채울수록 충만해지는 것이며
비울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채우면 불편해지고 비우면 불안해지는 보물,
채우면 충만해지고 비워도 자유로워지는 보물.
보물이 인간에게 좋은 것이라면
참된 보물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마음을 채우는 일보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는 일은
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미사 (레지오)	오전	9:00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오전	8:30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오전	7:30
	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10:00
	레지오 마리애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오전 9:30
	성 시 간 (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레지오 마리애	오전 10:00
	성령 기도회	오후 8: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M.E. Sharing(3째주)	오후 7:00
	울뜨레아 (4째주)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짝수달 4번째 토요일)	오후 6:00
	배론 청년모임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애	오전 중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2:30
	3째주 - • 빈첸시오회	오전 9:00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이수수 마리아 고레티
	(생)김은지 릴리안, 김세중 요셉, 이영호 사도 요한, 김혜진 율리아나, 김마루 미카엘
주 일 낮미사	(연)이금순 마리아, 조지 가보라, 엄은섭 도로테오, 이현호 요한, 박문영 안젤라, 김훈규, 김윤엽, 장무등, 안지조 & 차소저, 고준희 제임스, 이영자 마리아, 박영희, 강용운 요셉, 김경숙 마리아, 서인수 요셉
	(생)최성자 카타리나, 고규재 체칠리아, 김세은 리키, 김바다 비비안, 김세종 안드레아, 김순실 모니카, 정띠또 & 명숙 루치아 가정, 최석원 클레멘스, 김풍길 바오로 & 재희 모니카 가정, 송호창 요셉 & 전하현 마리아 가정, 주용범 아브라함, 김순자 헤레나,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반영선 도미나카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18,6-9

화 답 송 ⊙복되다. 주님께서 당신 기업으로 뽑으신 백성이여.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흐뭇이 즐거워하라.
올바른 이라야 찬미가 어울리도다.
복되다, 그 하느님 주님이신 백성이여.
주님께서 당신 기업으로 뽑으신 겨레로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
당신 자비를 바라는 이들 위에 있나니.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제 그들을 살게 하시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나니,
우리 구원 우리 방패 주님이로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 바랐던 그대로
어여삐 여기심을 우리 위에 내리소서.⊙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11,1-2.8-19
<또는 11,1-2.8-12>

복 음 환호송 ⊙알렐루야.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리라.⊙

복 음 루카(Luke) 12,32-48<또는 12,35-40>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83	312
봉헌	255	272
성체	363	307
파견	211	218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시나이 산의 율법에서 성령의 선물까지

48). 생명에는 지울 수 없는 그 자체의 진리가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에 필수적인 이 진리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책임을 지게 된다. 스스로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행해지도록 자신을 단죄하는 것이며, 타인들의 실존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방어를 보장하는 방어벽들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생명의 진리는 하느님의 계명으로써 계시된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자신의 진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품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생명의 보호는 "살인하지 못한다."(출애 20,13; 신명 5,17)는 특별한 계명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법 전체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전체가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며,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은 충만한 의미를 찾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맺으신 계약이, 육체적인 차원까지 포함하는 생명의 시각과 그토록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생명의 길로서 주어진다.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내가 오늘 내리는 너희 주 하느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가 지시하신 길을 걸으며 그의 계명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면 너희는 복되게 살며 번성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 주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신명 30,15-16) 문제가 되는 것은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과 미래의 세상, 그리고 온 인류의 생존인 것이다. 실제로, 일단 생명이 선에서 멀어지면 참되고 완전하게 머무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선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계명들, 즉 "생명의 율법"(집회 17,11)에 매여있다. 행해야 할 선은 생명을 억누르는 짐으로 가해진 것이 아니다. 생명의 목적 자체가 바로 선이며, 오직 선을 행함으로써만 생명을 건설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 전체가 인간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생명의 말씀"(사도 7,38)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에 충실하게 머물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이 계명은 생명의 말씀들과 함께 엮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광의의 틀에서 벗어날 때 이 계명은 외부로부터 부과된 단순한 의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 한계를 찾아내려 하고, 그 계명을 약화시키는 요소들과 예외들을 찾아내려고 시도한다. 사람들이 하느님께 관한 진리에 완전히 열려있을 때, "살인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인간 자신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과 역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선한 것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인과 셈을 하자…

"지금 우리가 봉헌하는 이 미사는 첫 미사요, 마지막 미사이며, 그래서 단 한 번의 고유한 미사입니다." 꽤 오래전 영어를 못해 서럽고 힘들던 시절, 지금도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어느 미국 신부님의 강론 구절이었습니다. 어찌 미사뿐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내 머리와 마음에 떠오른 그 모든 감정과 생각들, 그 어느 것 하나 그 자체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단 한 번의 그것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씀은 귓가에 맴돌고, 그때마다 삶을 추스릅니다.

기쁨에 사로잡힐 때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슬픔과 분노에 안절부절못할 때 조용히 눈을 감게 합니다. 주제 모르고 고개 뻣뻣이 세우려 할 때 사방을 둘러보게 하고, 사방팔방 벽에 갇혔을 때 꺾인 무릎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한마디로 어둠에서도 눈을 떠 있게 하고, 빛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게 하여, 늘 저를 깨어 있게 해주는 셈입니다.

어김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이니라." 한 서산대사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나 자신, 내 머리와 마음과 영혼 그 안의 모든 것, 내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빠짐없이 귀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느 처지에도,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삶은 두렵고 겨룩합니다.

곳곳에 하느님 흔적이 없는 곳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어찌 개인의 삶에만 한정하겠습니까? 한 공동체, 사회, 민족, 더 나아가 인류의 행적(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독서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을 기억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당신 백성에게 그 일을 펼치신 하느님의 수고가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을 가르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양 떼"인 당신 제자들에게 어둠의 밤에도 깨어 있으라고, 그것도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십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다고 그리스도 신앙인의 자세를 권고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삶을 꾸려갈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도 삶도 모두 하느님의 것이며, 하느님께서 그 세상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찌 어느 한 집사만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했겠습니까? 역사는 한 사회와 집단, 민족과 공동체가 그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와 집단, 민족과 공동체를 노골적으로 혹은 대놓고 핍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핍박을 경쟁 혹은 적자생존의 이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또 어찌 사람에 대해서만 그리했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산과 강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무수한 생명체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마치 우리 인간의 것인 양 허리띠를 풀어놓고 맘껏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때리지 않았습니까?

저급한 탐욕을 채우는 그것을 행복이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사회와 공동체와 인류는 등불을 밝히고 있는지, 술 취해 있는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셈을 하자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
서울 대교구 신수동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렌스 남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남성철 베네딕도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야	황지영 안젤라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렌스 북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8월의 기념일

8월엔 유난히 우리 귀에 익숙한 성인들의 기념일과 축일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택하여 주보성인으로 모신 교우들께 축하드리면서 그분들의 정신을 따라 살도록 노력합시다.

- 4일 :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 6일 :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 10일 :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 11일 :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 14일 :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 15일 : 성모 승천 대축일
- 20일 :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
- 21일 :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 24일 :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 27일 : 성녀 모니카 기념일
- 28일 :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

◈ **제대회 설립, 회원 모집**

전례와 제단에 봉사할 제대회를 설립하며 회원을 모집합니다.

- 봉사할 내용 : 제대 정리 및 미사 준비, 꽃꽂이, 일반협조회원(많은 분들이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제대회장 오창애 안나 ☎(310)974-2857

◈ **전례 협조자 모집**

- 대상 : 1. 독서자-미사 중 독서를 할 수 있는 남·여 교우
  2. 해설자-미사 해설을 할 수 있는 남·여 교우
  3. 성인 복사단-미사 때 복사를 설 수 있는 남성교우
- 연락처 : 전례분과장 윤희동 안토니오 ☎(310)365-7871 본당 수녀님

◈ **배론 청년회 피크닉**

- 일시 : 오늘 주일(8일) 오전 11시
- 장소 : Hesse Park(29301 Hawthorne Bl. R.P.V.)
- 연락 : 이상용 엘리야 회장 ☎(310)650-6057

◈ **요셉회 친교잔치에 초대합니다.**

- 일시 : 8월15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식사 : 여름 보양식 삼계탕 ● 대상 : 65세 이상 누구나 환영
- 문의 : 요셉회장 권태만 실베스텔 ☎(310)989-9077 총무 신중철 아브라함 ☎(310)619-4343

◈ **빈첸시오회에서 빈 김치병을 모읍니다.**

- 불우이웃돕기 김치판매를 앞두고 빈첸시오회에서 빈 김치병을 수거합니다.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박흥룡 요셉 회장 ☎(310)283-5879

◈ **백삼위 골프회 8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8월21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알론드라 팍 골프코스
- 문의 : 정충로 안토니오 골프회장 ☎(310)991-6966

◈ **2010년 제23회 남가주 성령쇄신 대회**

- 주제 :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사도 2,18)
- 일시 : 8월21(토) 오전 8시~오후 10시
  22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 Marsee 오디터리엄 (16007 크렌셔 불러바드, 토런스)
- 강사 :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한국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회장), 허윤석 세례자 요한 신부(한국 가톨릭 전례학회 사무처장), 배기현 콘스탄틴 신부(LA 성삼 한인천주교회 주임)
- 참가비 : $25
-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장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본당 신부님배 축구대회 및 족구대회 개최**

- 일시 : 8월29일(주일) 오후 1시
- 축구대회 : 양업회 , 대건회, 원서회, 청년회
- 족구대회 : 성모회, 자모회, 원서회자매, 청년자매
- 선수구성 : 축구 각 7명, 족구 각 6명
- 상품 : 1등 트로피 및 부상 증정
- 연락처 : 박상진 바오로 ☎(213)819-4242, 김철민 요한 ☎(310)740-1502, 이상용 엘리야 ☎(310)650-6057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8월8일(주일) : P.V.1반(콩나물비빔밥 $3)
- 8월15일(주일) : 하버/카슨 2반(수제비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기석	김병조	김선제	김성헌	김정엽
김종문	김충섭	남명자	류태우	문충한	민경근
박써니	박완철	박인식	박정희	박흥룡	송재훈
신경훈	신철규	양영관	엄정자	오수인	오일순
오 진	유근우	윤화경	윤희동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연행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이태옥
장영우	정순석	조경림	조소영	조윤영	주대종
주용범	지경수	차병용	최길주	하정화	한금순
한혜숙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4,570

미사헌금 : $2,597　　2차헌금 : $804

성전헌금

구자운	김기석	김병조	김선제	김정엽	김종문
김충섭	남명자	문충한	민경근	박써니	박완철
박인식	박정희	신경훈	신철규	양영관	엄정자
오수인	유근우	윤화경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이태옥	장영우	정순석
조경림	조소영	주대종	지경수	차병용	하정화
한금순	한혜숙	영희가보라			

합계 : $3,245

감사헌금 : 장준서 안연숙 홍주희 주용범

공지사항

◈ **제66차 남가주 ME 첫주말 참가 신청**

- 일시 : 9월3일(금)~5일(주일)
-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
- 등록비 : $ 50
- 문의 : 백삼위 M.E.대표부부 김성헌 유스티노 & 김희연 루시아 ☎(310)347-1665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 학기시작 : 9월12일(주일)
- 수업시간 : 주일아침 9시30분 학생미사후~오전 11시45분
- 대상 : 유치부(9월기준 4살반 이상)~12학년
- 등록기간 :오늘 주일(8일)~9월12일(주일, 이후 $10 추가)
- 등록비(1년) :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부터 무료
- 자모회비 : $40 (가정당)
- 접수 : 미사후 현관 접수처
- Liability 문제로 교구 지침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은 반드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속히 마쳐주시면 모든 준비에 도움이 되오니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첫영성체/신영세자/견진성사/초상화(영정) 사진 찾아가세요.**

- 대상 : 지난 5월 견진성사, 6월 첫영성체 예식과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찾아가세요.
- 영정사진 : 사진을 찍었는데 나오지 않은 분들은 이진행 힐라리오 홍보부장에게 문의하세요. ☎(714)290-4807

남가주 소식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 새성전봉헌 1주년 기념 영성강의**

- 일시 : 8월13일(금)~15일(주일)
- 강사 : 유시찬 보나벤뚜라 신부(예수회)
- 주제 : 나는 누구인가? 관점의 변화, 삶의 태도 변환
- 수강료 : $10(per day)
- 문의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 ☎(714)772-3995

◈ **제 1회 남가주 가톨릭 한인 청년연합 찬미의 밤**

- 일시 : 8월 28일(토) 오후 7시~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 천주교회
  (St. Thomas Korean Catholic Center
  412 North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문의 : 백삼위 배론 청년회 밴드부장 김기석 바오로 ☎(323)206-2657

이번 주 단체 모임

재단체 모임의 날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소공동체 8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8/6(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정기은 비오 530-7702 8/14(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8/19(목)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강혜원 아네스 780—0369 8/13(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홍광선 & 엘리사벳 543-4953* *8/7(토) 오후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정정현 베네딕다 720-2876 8/14(토)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오명섭 미카엘 326-1519 8/20(금) 오후 7시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박희자 마리아 972-9193 8/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이상철 크리스토퍼 750-4051 8/14(금) 오후 5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스텔라 213-272-8393* *8/6(금)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전수 스테파노 808- 5005 8/14(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미정	오영섭 스테파노 891-3688 8/13(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087 8/14(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택수 프란치스코 560-6615 8/13(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주보로 배우는 교리

성체강복이란? … 모령성체란?

☞ 성체강복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부님께서 향을 피우고 어떤 물체를 높이 추켜올리는데 성체강복은 어느 때 하는 것이고 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즈음은 수도원에서나 피정 때 등 특별한 때 외에는 성체강복을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백삼위 본당의 경우 매달 첫 목요일 성시간에 성체강복이 있습니다.*)

성체강복은 성체께 대한 흠숭을 드리는 하나의 전례행위입니다. 우선 성체를 성광에 모시고 제대 위나 적당한 장소에 모십니다. 이를 성체현시라고 하지요. 성광(聖光)은 빛이 발산되는 모양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체현시를 하고 성체조배를 합니다. 성체조배 기도가 끝나면 다시 성체를 감실에 모시게 되는데 이때 성체강복을 합니다.

성체강복 때는 성체찬가를 노래하고 사제는 흠숭의 뜻으로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성체가 모셔진 성광을 높이 쳐들고 신자들을 향해서 강복을 줍니다. 이때 복사는 성체를 향해서 분향을 할 수도 있고 엄숙한 순간에 신자들의 주위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종을 칠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은 경건한 맘으로 머리를 숙이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강복을 받습니다. 강복 후에 사제는 성체를 다시 감실로 모십니다.

☞ 콘스탄티노플신경 · 아타나시오신경 ·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그리스도교 교의의 내용을 간추려 적은 공식적인 진술을 신경(信經)이라 합니다. 신경에는 니체아 콘스탄티노플신경·아타나시오신경·사도신경이 있습니다.

1. 콘스탄티노플신경 : 니체아공의회(305년)에서 아리우스주의(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4세기경의 이단)를 배격하고 정통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채택한 신앙고백을 니체아신경이라 하는데 이를 발전시켜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년)에서 채택한 것을 콘스탄티노플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은 성부와 성자와의 일체, 성령, 교회, 성사, 육신의 부활,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아타나시오신경 : 성삼(聖三)교리를 강조하며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강조합니다.

3. 사도신경 :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신앙고백을 담은 12항목의 신앙고백문으로 예비자들을 위한 길잡이이며 교육지침입니다. 콘스탄티노플신경은 라틴전례의 미사통상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교회에서는 주로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 모령성체(冒領聖體)란 무엇입니까?

모령(冒領)이란 한국 천주교회 초창기부터 사용해 온 말로서 성사를 모독하다, 자격이 없이 받다, 독성하다의 뜻으로 풀이합니다. 모령성체는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영성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써 일치와 사랑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것이므로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은총의 지위가 필요합니다. 은총의 지위에 있지 않은 신자가 스스로 중죄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영성체를 하는 경우 모령성체가 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1고린 11,28)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1고린 11,27) 파문당한 자, 성체성사를 정지당한 자, 중죄 중에 있는 자(교회법 915) 등은 은총의 지위를 잃은 자이며 이들은 영성체하기 전에 고백성사로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여야 한다.

☞ 사람이 죽는 즉시 사심판을 받는다는데 그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없이 죽지만 하느님을 믿고 영생을 믿는 이들은 죽음이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세생활과 후세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잘못에 대한 상벌이 있는 것처럼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란 용어를 쓰지만 그 심판은 세상 법정에서 판결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양심의 판단으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심판에는 정의와 자비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이를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는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연옥 영혼들과의 사랑의 나눔이자 실천인 것입니다.

<◆자료 : 서울 대교구 문화홍보국 정보마당>